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재개 관심

코스피 기관 선호주 트레이딩 대응

코스닥은 2차전지·기술주 접근 필요

안정세를 찾아가는 글로벌 증시 및 코스피지수는 달리 코스닥지수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 발언으로 통화정책 공포심리가 확대되고 지난 4월에 부각되었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발표가 압박했다

코스닥시장은 제약·바이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펀더멘탈 논리보다 유동성과 정책기대감 등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연초까지 바이오주 상승으로 보여준 코스닥지수 상승과 연초 KRX300 도입 및 코스닥벤처펀드 설정에 따른 시장반응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위험자산 선호가 급감하며 달러강세 → 위안화 약세 → 원화약세(원달러 환율상승)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비중이 코스피 대비 현저하게 낮은 코스닥시장이 외국인 순매도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유동성과 시장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코스피 대비 위험선호도가 높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높아 시장과열시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하락반전시 담보부족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6월 이후 코스닥시장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코스닥시장 과열에 지표라 할 수 있는 신용잔고비율이 지난 6월 11일 6조3000억원 대비 약 15% 감소한 5조5000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수급적 측면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순매도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코스닥시장의 추세적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지수의 반등을 고려한 투자보다는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는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에 집중하고 실적이 확인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2차전지와 기술주·엔터주 등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코스피지수도 추가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미·중 무역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취약한 수급에 따라 기술적반등과 기간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낙폭과대주와 외국인·기관 선호주에 조정시 트레이딩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역시 비핵화 속도조절을 인정한 상황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미협상 추진, 종전선언, 한국정부의 중재론 등이 가시화 될 수도 있다.

북한과 협상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추격매수보다는 재료에 따라 대북 사업별 주도주 중심으로 단기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로컬푸드직매장 14개로 늘려 농가소득 증대 총력”

농협 상반기 광역시 단위 업적평가 전국 1위 김일수 광주본부장

도시가족 주말농부체험장·강소농 육성 6차 산업 활성화

‘농업인 월급제’ 시행 안정적 가계소득 도움줄 것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가 ‘상반기 종합경영분석회’에서 광역시 단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1위 달성패’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김일수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29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의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현재 농업·농촌은 농업 생산액 둔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고령화 심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농촌의 존립기반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농협 구현”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정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사랑나눔 실천을 역점사업” 등 광주지역 농업인과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농협사업을 펼칠

생각이다.

“우선 광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협은 판매농협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지요.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1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금융점포 내 소규모 농산물 판매장과 주민센터 내 유·무인 로컬푸드점 개설, 금요장터 개장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농산물 브랜드인 ‘빛찬들’의 인지도를 올리고 연합사업단 참여농협을 확대해 가격경쟁력과 판매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현장중심의 농업·농촌 실의지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며 “지자체·농업인·농협의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광주시와 첫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가 있다.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수입이



없이 영농·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달 월급을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여기에 벼 직파재배 확대와 직파기·균형기 보급 등으로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노동력 절감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본부장은 또 광주 농촌의 6차 산업을 꾀하

기 위해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농장, 농식품가공농가 등 강소농(強小農)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를 육성하고 농촌 체험 팜스테이 마을 쌀밭 아카데미,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자연발효식초 가공교실 등 현장교육 강화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단위, 주부, 어린이 등 도·농 협동 도시민 체험단을 연간 3000명 이상 목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의 다양한 고충을 접수받아 생활불편 해소, 가전·주택수리,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그는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라며 “도움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각종 생활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 농촌을 문화·생태·복지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농업인은 물론 농업인 단체, 그리고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소비자들과 고객이 믿고 찾는, 신뢰 받는 광주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폭염 피해 농가 현장 점검

물 부족 지역 생수 지원

취약계층 농업인 건강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28일 이례적인 폭염으로 영농철 고생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박태선 본부장과 박서홍 부분부장, 이상진 나주시지부장, 김재영 나주동강농협 조합장

등은 나주시 동강면 진전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간식을 전달하며 지역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지속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온열 질환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밤농협 차원에서 물 부족 지역에는 생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농업인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립종자원 올 상반기 신종출원 362건 소폭 증가

화훼류 54%, 채소 20%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신종출원 건수가 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건보다 소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출원 362건 가운데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은 265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출원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05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63건(24%)·종자업체 51건(19%)·민간육종가 38건(14%) 등이 뒤따랐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95건으로 가장 많은 54%를 차지했다. 이어 채소 74건(20%), 식량 40건(11%), 과수 33건(9%), 특용 10건(3%), 버섯 7건(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훼작물 ‘레우코코디’·‘악실라리스’·‘레우코코디’ 이 케이스케이·‘센나’와 과수작물 ‘블랙엘더’ 등이 신종출원 이름을 올렸다.

한편, 75개 작물 393품종은 품종보호등록으로 지정돼 과수·임목은 25년, 일반 작물은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연합뉴스



해농식품, 김 생산·판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IT) 활용도가 낮았던 광주·전남지역 농식품업체의 생산·유통 공정에 전산화 바람이 불고 있다. 농식품제조분야에 정보기술을 활용할 경우 품질 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마케팅과 물류 관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미 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 해농식품(haenongmall.com)은 최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들을 자동연계해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목포 대양산단에 연말까지 들어설 신공장은 자동 포장설비와 자율주행 지게차 등의 시스템을 설치해 공장내 전 생산과정을 무인·노스톱 공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해농식품 조명주 대표는 “공장 시스템이 변할 경우 제품생산성 제고와 판매증진효과는 물론 IT 기반 일자리 창출로 고용까지 확대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해농식품은 2012년 인천에서 나주로 이전한 조미김 제조업체로 7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과 장애인들이 전체의 50%를 넘어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해농식품은 최근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아프로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es include: 2~3 years warranty, 20+ years experience, IPALG TriShield waterproofing, and various services like waterproofing, drainage, and mold prevention. Contact info: (062)511-0444, (061)284-0485.

Advertisement for Twin Steel (트윈스틸) waterproofing and construction services. Features include: Slab waterproofing, steel panels, and various construction services. Contact info: H.010-9229-3530.